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에 관한 사실



1981년 6월 24일 크로아티아의 메주고리에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6명의 어린이에게 성모님께서 발현 하셨다.

이반카 이반코비치(Ivanka Ivankovic), 미리야나 드라기 세비치(Mirjana Dragicevic), 이반 드라기세비치 (Ivan Dragicevic), 이반 이반코비치(Ivan Ivankovic), 밀카 빠블로 비치(Milka Pavlovic)와 비치카 이반코비치(Vicka Ivankovic)는 발현의 언덕에서 아기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성모님을 보았다고 발표하였다.

다음날인 1981년 6월 25일에 밀카 빠블로비치과 이반 이반코비치는 더 이상 성모님을 뵈지 못하고 새로운 두 아이, 마리아 빠블로비치 (Marija Pavlovic)와 야곱

콜로 (Jakov Colo)가 성모님의 발현을 보게 되었다.

첫째 날

이날 저녁 대략 6 시경에, 포드브로드(PODVROD)라고 알려져 있는 CRNICA 언덕에서 아이들은 (아반카 이반코비치, 미리야나 드라비체비치, 비치카 이반코비치, 이반 드라기체비치, 이반 이반코비치, 밀카 파블로비치) 팔에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젊은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가까이 올라 오라는 것을 몸짓으로 가리켰다. 그들은 즉시로 그분이 성모님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놀라고 두려웠던 아이들은 집으로 도망을 쳤다.

둘째 날

1981년 6월 25일, 아이들은 성모님을 다시 보고 싶다는 희망으로 지난번에 성모님께서 나타나셨던 똑같은 장소에서 한번 더 만나기로 합의하였다. 불현듯 갑자기 빛이 번쩍이었다, 아이들은 위를 올려다 보았고 성모님을 보았다. 이때는 아기는 없었다. 성모님께서서는 기쁘게 웃고 계셨고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우셨다.

성모님께서서는 손으로 가까이 오라고 그들을 가리키셨다. 스스로를 버티고 있던 아이들은 성모님께 다가갔다. 그들은 즉시로 무릎을 꿇고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기도하였다. 성모님께서서는 그들이 성모송을 바칠 때를 제외하고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셨다. 기도가 끝난 후 성모님께서 아이들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먼저 아반카가 두 달 전에 돌아가신 그의 어머니에 관해 성모님께 여쭙어 보았다. 그리고 미리야나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위해 사람들에게 보여줄 어떤 표징을 주실 것을 성모님께 요청하였다. 마지막에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나의 천사들아! 라는 말씀을 하시고 아이들을 떠나셨다. 그전에 아이들이 다음날도 성모님을 뵈 수 있는가를 여쭙어 보았을 때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하셨다.

발현증인들에 따르면 우연한 만남의 모든 일은 형언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날은 첫째날 함께 있던 2명(이반카 이반코비치, 밀카 파블로비치)이 빠졌었다. 그들 대신 마리아 파블로비치과 야곱 출로가

있었다. 이 여섯명의 아이들은 이날 이후로 성모님께서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나타나신다고 한다. 발현 첫째날 있었던 밀카 파블로비치와 이반 이반코비치는 성모님을 보고 싶다는 바람으로 발현 장소에 돌아가 보았으나 다시 성모님을 볼 수 없었다.

셋째 날

1981년 6월 26일, 기대로 가득 찬 아이들은 6시쯤을 기다렸었는데 그 시간은 지난날에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시간이었다. 그들은 성모님을 만나기 위해 같은 장소를 향하여가고 있었다. 그들의 기쁨은 존재할 이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하여 두려움과 걱정이 섞였으나 그들은 매우 행복하였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성모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을 이끄는 어떤 내적인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은 걸어가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빛이 세 번 번쩍이었다. 이것은 아이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모님의 소재를 가리키는 표시였다.

이 셋째날 성모님께서는 그 전날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발현하셨다. 즉시 성모님께서는 사라지셨으나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다시 나타나셨다. 성모님은 기분 좋게 밝은 모습이셨고 잔잔히 미소 짓고 계셨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모님의 아름다움은 말할 수 없이 압도적인 것이었다.

아이들이 그들의 집에서 출발할 때 어떤 할머니들은 그들에게 그것이 사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 성수를 가지고 가라고 일러주었다. 그들이 성모님과 함께 있을 때, 비츠카가 성수를 집어 들어 만일 당신이 복되신 어머니라면 머물러 있고, 아니라면 우리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며 성모님이 보이는 방향으로 뿌렸다. 이때 성모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아이들과 함께 남아 계셨다.

그런 다음 미리아나가 이름을 여쭙었을 때 성모님께서는 나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이다 라고 대답하셨고 같은 날 발현산 아래에서 성모님께서는 한번 더 발현하셨다. 그러나 이때는 평화, 평화, 평화,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나 에게만 나타나셨다. 마리아나는 성모님 뒤에 십자가를 볼 수 있었다. 성모님께서 다음 말을 우시면서 반복하셨다. 인간과 인간사이의 평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이 일이 있었던 지역은 발현언덕의 묵주기도 장소까지 약 반정도 되는 곳이었다.

넷째 날

1981년 6월 27일, 성모님께서 아이들에게 세 번 나타나셨다. 그 때에 아이들은 모든 종류의 질문을 하였고 성모님께서는 대답하셨다. 사제들에 대하여, 성모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주셨다. 사제들이 확고히 믿는다면, 그들은 사람들의 믿음을 돌볼 것이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마약에 취했다고 비난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야곱과 미리아나는 다시 한번 어떤 표시를 요청하였다.

성모님께서는 아무 것도 두려워 말아라 라고 대답하셨다. 헤어지기 전 다시 오실 것인가를 여쭙었을 때 성모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표현하셨다. 포드브로도로 내려가는 길에서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나의 천사들아, 평안하게 가거라 라는 말씀과 함께 발현을 끝내셨다.

다섯째 날

1981년 6월 28일, 이른 아침 일찍부터 각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정오가 되자 약 15,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날 본당 신부님이신 요조 조브코 신부님은 아이들에게 그 전날에 보고 들었던 것을 질문 하셨다. 평상시와 같은 시간에 성모님은 다시 발현하셨다. 아이들은 성모님과 함께 기도 드렸고 그 후에 그들은 질문을 하였다. 예를 들어 비츠카가 성모님 저희와 신부님들에게 무엇을 원하셔요? 라고 여쭙자 성모님께서는 사람 들은 기도하고 굳게 믿어야만 한다 라고 대답하셨다.

사제들과 관련하여, 성모님께서는 그들이 굳게 믿고 다른 이들도 같이 행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대답하셨다. 이날 성모님께서는 여러 번 나타나셨다. 여러 번 발현 중 아이들이 왜 성모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본당에 발현하시지 않으시는가를 여쭙자 성모님께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다 라고 대답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질문과 호기심들로 아이들을 짓누르는 바람에 힘들고 몹시 불쾌한 날이었으나 아이들은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이 느꼈다.

여섯 째 날

1981년 6월 29일, 아이들은 의학적인 검사를 받았고 건강하다 라는 진단을 받았다. 대표 의사의 성명에 의하면 아이들은 미치지 않았다. 이 아이들을 여기에 데리고 온 사람이 그럴 수는(미쳤을 수는) 있지만..... 라고 하였다. 이날 발현산에 이전보다 더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다. 아이들은 여느 때와 같은 장소에 도착 하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다.

이때 성모님께서는 사람들은 굳건히 믿고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기를 간곡히 타이르셨다. 이날 아이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관찰하던 한 여의사는 성모님을 만져보기를 열망하였다. 아이들은 그녀의 손을 성모님의 옷자락이 있는 곳을 가져갔고, 그녀는 따끔한 감각을 느꼈다.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의사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여기 뭔가 이상한 것이 일어나고 있다.

같은 날 다니엘 셋카(setka)라는 이름의 한 아이가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다. 그 여자 아이의 부모는 그녀를 메주고리에 데리고 와서 특별히 치유를 위해 기도하였다. 성모님께서 그의 부모가 기도하고, 단식하며 강하게 믿으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아이는 치유를 받았던 것이다.

일곱 째 날

1981년 6월 30일, 두 명의 어린 소녀가 아이들에게 편안하게 산책하기 위해 자동차로 좀더 멀리 가자고 제안하였다. 실제로 그들의 의도는 아이들을 그 지역에서 멀리 데리고 가서 평상시의 발현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그들을 데리고 있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평상시의 발현 시간에 포드브로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적 부름이 차 밖으로 나오기를 요청하며 그들을 이끌었다.

아이들은 밖으로 나오자마자 기도하였고, 성모님께서는 이때 1km 이상이나 떨어져 있던 포드브로드 방향에서 그들에게로 가까이 다가 서셨다. 성모님께서는 일곱 번의 주님의 기도를 바치셨다. 그래서 그 소녀들의 속임수는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이 일 이후에 곧 경찰은 아이들과 순례자들이 발현 장소인 포드브로드에 계속 가는 것을 방해하였다. 그 후 곧 아이들과 군중들조차도 거기에 가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그들의 집이나 별관 등 은밀한 장소에서 그들에게 계속 발현하셨다.

아이들은 이미 확신을 얻었고 숨김없이 성모님과 얘기하였으며, 성모님의 조언을 간절히 구하며 훈계와 메시지를 경청하였다. 메주고리에의 사건은 이런 식으로 1982년 1월 15일까지 계속되었고 그 동안 본당 신부님은 성당에서 순례자들을 맞이하기 시작하여 그들을 묵주기도에 참석하고 영성체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아이들도 묵주기도를 알렸다. 때때로 성모님께서 그 시간에 성당에서 그들에게 발현하셨다.

한번은 본당 신부님도 직접 묵주기도를 멈추고 스스로 오! 아름다우신 당신은 가장 복되신 동정 마리아입니다를 노래하기 시작하였다. 모든 성당 사람들이 어떤 비범한 일이 그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의심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현 소문조차도 공공연히 반대하던 그가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순간에도 발현에 대한 그의 지지를 주장하였다. 1982년 1월 15일 이후로 아이들은 본당에서 인접한 장소에서 성모님을 보았다. 본당 신부님은 최근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과 때때로 목격자들에게 심지어는 위험도 있었기에 이것을 조정하였다. 사전에 아이들이 이것은 성모님의 바람에 따른 것이라고 보증하였다.

그러나 교구 주교님의 중지 때문에 1985년 월 이후로 아이들은 발현장소로써 성당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였다. 그 대신에 그들은 교구회관의 방으로 갔다. 발현 시작부터 오늘까지 줄곧 아이들이 성모님을 뵈지 못한 날은 오직 5일 뿐이었다. 성모님께서 는 같은 장소뿐만 아니라 같은 그룹과 같은 한 사람에게만 항상 나타나시지는 않으셨다. 게다가 발현도 항상 특별히 지정되어진 시간에 지속되지도 않았다. 때때로 발현은 2분, 어떤 때는 한시간 지속되기도 하였다.

성모님께서서는 아이들의 뜻에 따라 발현하시지도 않으셨다. 어떤 때 그들은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뜻밖에 예고도 없이 성모님께서서는 조금 지난 시간까지도 나타나시지 않으셨다. 어떤 때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만 나타 나시고 한 사람에게는 나타나시지 않으셨다.

성모님께서 약속시간을 정하지지 않으신 때는 언제 발현하실지, 또는 발현하실지 (안 하실 지)도 아무도 몰랐다. 성모님께서서는 앞서 말한 발현증인들에게만 항상 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연령, 신장, 인종, 교육, 삶의 발자국을 지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발현하셨다.

이 모든 것은 발현이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발현은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 바람(원의), 순례자들의 그룹 또는 발현증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발현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느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다.